(제42권 22호)

성령 강림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PENTECOST SUNDAY

주후 2020년 5월 31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Hymn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새190)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63 번 성령강림절 Whitsunday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문일호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Leading	**고전 (1 Corinthians) 12:1-13**	배현미 집사
설	교 Sermon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 **(The Same Spirit, The Same Lord, The Same God)**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송: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278 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새 220)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안락함을 추구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 잡혔던 우리의 불신앙과,
하나님과 무관하게 분주하기만 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신앙과 무지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하여, 유혹의 욕심을 따르려는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좇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며,
매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신실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4:22-2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한글개역 **고전 12:4-6**)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gifts, but the same Spirit.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service, but the same Lord.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working, but the same God works all of them in all men." (NIV **1 Corinthians 12:4-6**)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5/24 (주일)	5/25 (월)	5/26 (화)	5/27 (수)	5/28 (목)	5/29 (금)	5/30 (토)
본문	신5	신6	신7	신8	신9	신10	신11
	시88	시89	시90	시91	시92,93	시94	시95,96
	사33	사34	사35	사36	사37	사38	사39
	계3	계4	계5	계6	계7	계8	계9

수/요/ 성/경/공/부

수요 성경공부(6/3수 오후7:30)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민 16:1-11)

지난 주일(5/24) 말씀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히 10:1-18)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New Normal** (**새로운 일상**)'이라는 말이 있고, 또한 '**Post Corona** (**코로나 19 이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Robert Frost가 쓴 "The Road Not Taken(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의 제목처럼, 지금 우리는 분명 '가지 않은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에 가장 먼저 들어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히10장)의 영어 성경 NIV 소제목을 보면, "**Christ's Sacrifice Once for 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1)첫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삶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이기적이고 그릇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둘째,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짐을 통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한 알의 밀처럼,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어질 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셋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불확실성과 염려와 문제가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